

# 사슴 인공수정 신중해야 한다

양육업계는 좁다. 어느 누가 돌출된 행동을 하면 금방 소문이 퍼진다. 소문을 들은 양육인은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서로 입방아를 찧어댄다.

그리고 양육업계는 쫓대있는 사람이 드물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아마 양육업 전반을 꿰뚫을 수 있는 「한국적 지침서」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일 것이다. 사슴으로부터 파생되는 의문점이 얼마나 많은가. 사료·질병·사양·시설·육종·개량·유통, 그리고 녹용의 가공·효능·효과·판매·절각·성장·홍보 등등……. 이 의문점을 명쾌히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존재치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야마다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분야에 대해서 말하여 무엇하랴.

사슴 인공수정(AI, Artificial Insemination)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부터 전개하는 사슴 인공수정 실태에 관해서도 해당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 그래도 할말은 해야겠다. 사슴 인공수정에 관심을 표명하는 양육농가가 많고 현재 부작용도 심각해 미연에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사슴 인공수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신중해야 한다. 왜, 신중해야 되는지 하나 하나 점검해 보기로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축개량의 목적으로 사슴보다 훨씬 앞서 지난 70년대부터 젖소에서 인공수정이 실시되었다. 그러다가 한우에까지 이르러 지금은 보편화되어 웬만한 소사육 농

가에서는 자연종부 보다 인공수정을 선호하고 있다.

돼지에서도 인공수정을 지난 90년대 초부터 시도하고 있으나 끊임없이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소 보다 까다로운 돼지 인공수정은 수태율에서부터 정액의 위생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참고로 좀더 깊이 들어가 돼지 인공수정에서 왜 위생문제가 부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양돈농가들의 경우 수태지의 유전능력만을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는 현행 인공수정센터 설립허가 기준에 위생검사 조건도 포함시켜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농림부가 시행중인 인공수정센터 허가 기준은 인공수정사나 수의사를 2명이상 확보하고 국내에서 검정한 돼지로 선발지수가 2백 30이상이거나 하루 체중 증가량이 1kg이상, 사료요구율이 2.2이하, 등지방두께가 1.4cm 이하인 수태지를 10마리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돈농가들은 현재의 인공수정센터 설립허가 기준은 정액공급용 수태지의 유전능력만을 평가, 수태지의 질병감염 여부를 정액공급전에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로인해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과 같은 가축질병이 전파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가축질병을 미리 막을수 있도록 정액공급용 수태지에 대해 허가단계에서부터 위생검사를 실시, 음성돼지에 한해 정액 공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돼지 인공수정용 정액은 거의 국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수

입은 아주 미미하다.

이와 같이 돼지는 농림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인공수정센터를 설립한 업체만이 인공수정을 하도록 해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사슴 인공수정은 수입되는 정액의 검사기준만 있을뿐 국내 취급업자에 대한 자격기준이나 제한은 전무하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사슴 인공수정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이다.

사슴과 가장 유사한 젖소는 어떠한가. 젖소의 인공수정은 현재 가장 일반화되어 사육농가의 60% 이상이 인공수정으로 젖소를 개량하고 있다. 젖소의 정액은 수입산과 국산이 있는데 수입산은 무역업체에서 취급하고 있고 국산은 축협중앙회 가축개량본부(유우개량부)에서 취급한다. 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일부 생산하고 있으나 그 양은 아주 소량이다.

수입산이든 국산이든 정액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종축개량협회에서 규격확인을 거치고 수입정액은 사후추천을 받아야 한다. 특히 수입정액은 국립동물검역소에서 수입되는 정액의 숫자를 파악하는등 절차를 거쳐 검역증을 발급해 준다.

사슴 인공수정 정액도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현실이므로 젖소의 수입정액 실태를 파악해 보면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

젖소의 정액을 수입하면 3대에 걸쳐 혈통증명서가 첨부되고 스트로우(Straw)마다 정액 코드 번호가 찍혀있다. 아울러 「종모우 일람표」에 아비소, 어미소, 아들소, 딸소의 능력이 사진과 함께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젖소의 정액은 수입국 홀스타인협회에서 품질을 인증해 주는등 3개월마다 정액의 사후관리를 위해 능력을 파악한다.

젖소 수입정액의 국내 농가 보급가격은 5천원부터 10만원정도까지 폭이 크다. 10만원정도 되는 가격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3~5만원이면 톱(TOP)수준의 정액을 공급받을 수 있다. 보통 2만원 내외의 정액이 널리 사

용되는 보급형이다. 국산 젖소정액의 가격은 이보다 훨씬 싸다. A등급이 7천원 수준, B등급은 5천원, C등급은 3천원 정도다. 인공수정료는 농장거리에 따라 다르나 2만원 내외이다. 젖소의 경우 농가에서 직접 인공수정을 하기도 하며, 인공수정사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 수태율은 1차에서 50~60%, 2차까지 가야 70% 수준에 이른다.

이상 젖소와 돼지의 인공수정 실태를 간략히나마 알아 보았다.

우리나라에 사슴 인공수정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94년도부터다.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드는 사슴 인공수정은 당시에 양록조합장으로 몸담았던 김찬규(현 역촌동물병원장) 씨에 의해 처음으로 양록농가에 소개되었다.

수정란이식(ET, Embryo Transfer)과 더불어 인공수정이라는 선진기술이 사슴개량차원에서 일부 농가에 보급되어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뜻있는 농가에서 상당수 참여하여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는등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반면에 △수정료가 비싸다 △수태율이 낮다 △정액의 유전적 신뢰성이 희박하다 △인공수정으로 생산된 자록값이 너무 비싸다 △첫뿔이 부실하다는등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70만원정도 하던 정액값을 올해부터는 1백50만원은 받아야 되겠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사슴 인공수정을 사업적으로 인식한 몇몇 양록인이 올해 초에 캐나다를 방문하여 새로운 인공수정 기술자를 물색하기에 이르렀다. 천안의 백남엘크사슴목장, 아산사슴영농조합법인, 보래물산, 사슴산업연구회가 대표적인 예다. 이들이 캐나다의 인공수정 기술자를 알아 본 결과 「닥터 던칸 허클리」(Dr. Duncan Hockley)라는 인물이 자연스럽게 부각되었다. 이 한사람과 국내에 인공수정을 보급하려는 다자간에 치열한 물밑 교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닥터 던칸 허클리」가 이들과 서로 국내 대리점권을 주겠

다고 동시에 약속을 한 것이다. 도의상 한사람과 라이선스(Licence) 계약을 체결하는게 원칙인데 이사람 저사람과 약속을 하는등 어찌보면 국내 양육인을 우롱한 것이다. 한국에 건너와 될수 있는한 많은 숫자의 사슴에 인공수정을 하여 돈을 벌어 보겠다는 상업적 저의가 다분히 풍긴다. 같은 캐나다 출신으로 김찬규 수의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닥터 마이크 브링관」(Dr. Mike Bringans)은 모 양육인이 한국에서 사슴 인공수정을 보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를 부탁해도 단호히 거절했다고 한다.

결국 「닥터 던칸 허클리」와 손을 잡은 쪽은 사슴산업연구회로 결론이 났다. 나머지 사람들은 손을 털었으며 이 과정에서 모 인사의 경우 매우 감정이 격해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슴산업연구회는 현재 회원이 50여명 되는 일부 양육인의 친목단체다. 대대적으로 사슴 인공수정을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5일 건국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협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슴산업연구회가 적극 홍보하고 있는 사슴 인공수정액 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마리당 시세차익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기 바란다. 김찬규씨가 보급하는 정액가격은 현재로서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사슴정액 두당 수입가격 및 농가공급가격(시술료 포함)

정액명	수입가격 (U\$)	농가공급가격 (원)
RJ 코리안골드	1,400	1,820,000
RJ 존 보이	500	865,000
아스펜 와일드	-	-
블랙 벨벳	-	-
프리시즌	400	663,000
제로니모	-	-
맥스 투	-	-

※ 80두 시술시 30%, 120두 시술시 전체 금액에서 35% 감액 조건

참고로 덧붙인다면 김찬규씨와 계약한 「닥

터 마이크 브링관」은 사슴 인공수정 경력 10여년쯤 되고, 사슴산업연구회와 손을 잡은 「닥터 던칸 허클리」는 2년쯤 되는 초보자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슴 인공수정은 개량 측면에서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인공수정이 마치 사슴개량의 전부인 것처럼 너무 확대 홍보해서도 안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분히 진행하기를 권유하고 싶다. 아직까지 어떤 가능성도 구체화되지 않았고 초보단계이기 때문이다.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도 현재로서는 믿을 수 없다. 나아가 사슴 인공수정은 적어도 5년쯤 되어야 어느 정도 자육의 성적을 파악할 수 있고, 길게는 7년정도 되어야 후대검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슴 인공수정을 하는 주체자와 일반 농가들을 위해 앞으로 새롭게 점검하고 보완해야 될 내용 10가지를 간추려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보완되지 않은 사슴 인공수정은 심각한 부작용만 남을 뿐이다.

① 시급히 「종모록 일람표」를 만들어야 한다. 종록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들의 능력을 알수 있도록 3대에 걸친 인덱스(Index)를 사진과 함께 구비해야 한다. 녹용의 생산량 뿐만 아니라 사슴의 외모까지도 상세히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캐나다에서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면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② 혈통증명서를 첨부시켜야 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 국내에서 인공수정으로 생산된 사슴끼리의 근친번식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사슴의 족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③ 캐나다의 공신력있는 기구로부터 품질인증 및 위생검사를 필한 정액만을 수입·보급해야 한다. 사슴의 능력 파악과 함께 가축질병의 차단을 위해서다.

④ 정액 스트로우에 종록의 종류에 따라 코드번호를 달리해야 한다. 농가에서 손쉽게 알아보고 과연 원하는 종록의 정액이 주입되었는지 속지 않기 위해서다.

⑤ 수태율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임신이 되지 않으면 1년농사 망치는 일이 되며 누가 고가의 정액 값을 보상해 줄 것인가. 적어도 평균 70%까지는 끌어 올려야 한다.

⑥ 정액값을 낮추어야 한다. 인공수정의 목적은 비싼 종모락을 사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사슴을 개량하는데 있다. 아무리 사슴 인공수정이 희소가치와 까다롭다고 해도 현재의 정액값은 터무니 없이 비싸다. 정액값을 낮추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농가에 보급하는 것을 보류 내지는 중단해야 한다. 주인은 우리이지 캐나다 사람이 아니다. 외화유출을 막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

⑦ 기술축적을 서둘러야 한다. 언제까지 외국의 기술자 한두명에 의지하며 질질 끄러갈 것인가. 우리가 기술을 습득하면 국내의 우수 종목을 활용하여 인공수정을 할 수 있다.

⑧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육의 값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수컷일 경우 8백만원~1천2백만원까지 거래된다는데 이 건 분명 투기사업이 아니고서는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다. 사슴 인공수정이 개량의 차원이 아닌 자육분양 목적으로 전락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⑨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사슴은 현재 정부에서 종축의 개념으로 다루는 축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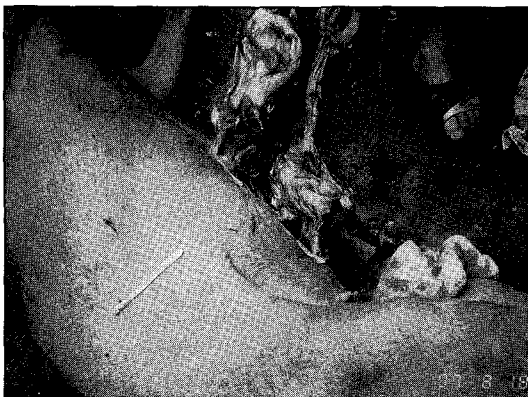
아니므로 생사슴과 정액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무작위로 들어오고 있다. 사슴 인공수정을 담당하는 업체나 개인은 수정이 끝났다고 등한시 하지 말고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유전적인 능력은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지 등 농가 자체의 사슴 가계도 정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인공수정한 사슴의 임신여부에 의심이 간다고 농가에서 기르는 숫사슴을 합사시켜 자연종부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인공수정의 목적이 퇴색되고 만다.

⑩ 사슴인공수정은 한 농가에서 다두 기술을 삼가하자. 가격도 부담이려니와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다. 쫓소처럼 체계가 잡혀 일반화 되지 않았으므로 한두마리 시험해 본다는 마음으로 신중히 접근하자. 캐나다에서도 사슴 인공수정은 현재 연구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다.

국내 양육농가에서 사슴 인공수정을 하고 안하고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임을 강조하며 이왕 시도할 바에는 신중히 임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잘못 하다가는 아까운 돈 날리고 후회만 남을 뿐이다. 후회하고 있는 사람을 다수 목격했기 때문이다.\*

## ● 포커스



자궁경관 개장부전으로 태아가 폐사되어 모체내에서 부패되어 제왕절개로 태아를 적출하는 장면



자궁경관 개장부전증으로 인해 모체내에서 부패된 새끼사슴을 제왕절개로 적출해낸 모습